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인간 내면의 이중적 에너지의
조형적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한 혜 성

인간 내면의 이중적 에너지의
조형적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한 혜 성

인 준 서

한혜성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인간 내면의 에너지의 이중성에 대해 고찰한 본인의 작품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본인은 지금까지 인간 내면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그러한 연구과정 중에서, 본 논문에서 다룬 작품은 인간 내면에 창조적인 에너지와 파괴적인 에너지의 양극의 에너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관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인간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이 양극의 에너지를 어느 하나가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닌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양극의 에너지를 조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보편적 경험을 담고 있는 그리스·로마신화의 이야기 중에서 인간의 창조적인 욕망의 원형적 상징인 이카로스(Icarus)와 파괴적인 신인 메두사(Medusa)의 상징을 작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로 활용하고, 이를 색채와 재료로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상징적 요소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파괴적인 에너지를 모두 '나'를 이루는 원리로 동등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본인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형적으로 표현된 두 요소를 시각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인이 경험한 인간 내면의 창조적 에너지와 파괴적 에너지를 동등하게 가시화함으로써 인간 내면의 이중적 에너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다수가 확신하는 '절대 우위' 또는 '비교우위' 개념을 낳은 이분법적 논리를 환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 내면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시화하기 위한 본인의 작품 <Māyā & Ātman> 시리즈 1-3에 대해 고찰해보기 위해 내용, 표현, 설치에 중점을 두어 본인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특징들을 논술하고자 하였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인간 내면의 연구를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을 알고자한 본인의 관점과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본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내용과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였다.

제 2장 본론 1장에서는 작품 주제의 정신적인 배경을 논하고, 본론 2장에서는 주제와 작품의 형태와의 관계를 형태와 색, 재료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론 3장에서는 참고도판을 제시하고 작품 제작과 설치방법에 관한 설명과 함께 작품분석을 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과 작품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	---

II. 본론	3
--------------	---

1. 주제설정의 배경	3
-------------------	---

1) 인간 내면의 이중구조	3
----------------------	---

2. 주제와 작품 형태와의 관계	5
-------------------------	---

1) 형태(形態)	5
-----------------	---

2) 색(色)	8
---------------	---

3) 물질(物質)	10
-----------------	----

3. 작품분석 및 작품도판	12
----------------------	----

III. 결론	22
---------------	----

참고 문헌

ABSTRAC

작 품 목 차

- 【작품 1】 <Māyā & Ātman I>, 90×115×90 ~ 90×210×45cm, 파라핀
왁스, 실리콘, 낚시 줄, 2004 11
- 【작품 2】 <Māyā & Ātman II-1,2>, 190×170×45, 100×90×45cm, 파
라핀 왁스, 실리콘, 낚시 줄, 2004 16
<Māyā & Ātman II-3>, 185×150×45cm, 파라핀 왁스, 실리
콘, 낚시 줄, 2004 17
<Māyā & Ātman II-4>, 140×180×45cm, 파라핀 왁스, 실리
콘, 낚시 줄, 2004 17
- 【작품 3】 <Māyā & Ātman III>, 39.5×76×3.5cm, 파라핀 왁스, 실리콘,
나무, 캔버스 천, 2004 19

I. 서론

본 논문에서 연구한 본인의 작품은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즉 본인은 인간 존재의 근원을 알고자 물질적 현상세계가 아닌 바로 나의 영혼, 나의 자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면의 세계를 연구하였다.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철학적 사유도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서부터 시작하여 인간 존재의 근원을 알고자 노력해 왔다. “밖으로 향하지 말고, 너 자신 안으로 돌아가라. 진리는 바깥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는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권고는 내가 찾고 있는 것, 나를 구제해 줄 마지막 보루가 물질적 현상세계가 아닌 바로 나의 영혼, 나의 자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뜻으로 인간 존재의 근원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말이다. 아우구스티누스뿐만 아니라 플라톤(Platon)과 데카르트(Descartes), 칸트(Kant), 그리고 셸링(Schelling)에 이르기까지 여러 철학자들은 인간 내면의 세계를 철학의 원리로 삼고 우리 안에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진정한 보물을 찾고자 하였다. 본인은 위의 철학자들과 같이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것을 알고자 인간 내면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본인의 인간 내면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내면에 이중적인 에너지가 잠재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고찰되었다. 그리고 내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중적인 에너지를 창조적인 에너지와 파괴적인 에너지로 받아들였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본인은 인간 내면의 에너지를 신화적인 상

정과 관련지어 연구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 논하고 있는 하얀 날개와 검정 촉수를 결합한 <Māyā & Ātman> 시리즈 1-3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 내면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시화하기 위해 상징적 이미지가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그리스·로마신화의 이미지를 빌어 왔다. 결국 파라핀으로 만든 하얀 날개는 하늘을 날다 추락한 소년 이카로스(Icarus)의 이야기를 인간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하고, 검정 실리콘으로 만든 촉수는 파괴의 신인 메두사(Medusa)의 이야기를 인간 내면의 파괴적인 욕망으로 활용하여 만든 결과이다. 이렇게 만든 날개와 촉수를 균형을 맞추어 조합하고 설치함으로써 창조적인 에너지와 파괴적인 에너지가 가치의 우열을 부여할 수 없는 동등한 것으로 인간 내면을 구성하고 있다는 본인의 관점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둘의 결합을 Māyā(환영)와 Ātman(본질)¹⁾이라 이름 붙임으로써 사회에 만연한 '절대 우위' 또는 '비교우위' 적 시각을 와해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자신의 내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두 에너지 즉, 창조적인 에너지와 파괴적인 에너지를 신화적 상징과 연결하여 조형화한 본인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 Māyā - 마야란 존재의 현상세계로 브라흐만의 마술적 창조력에 의해 드러난 것들이다.

Ātman - 아뜨만은 인간 안에 있는 내적 실재이다. 아뜨만은 내적 통제자로서 인간 마음 가장 깊은 빈 곳에 있는 연꽃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상카라에 따르면, 참된 자아인 아뜨만은 순수한, 무차별적인 의식이며 다른 어떤 경험에 의해서도 파괴 불가능한 실재이다.

II. 본론

1. 주제설정의 배경

1) 인간 내면의 이중구조

본인은 인간 존재의 근원을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에너지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인간의 내면에 이중적인 에너지가 잠재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고찰되었다. 그리고 내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중적인 에너지를 창조적인 에너지와 파괴적인 에너지로 받아들였다.

셸링(Friedrich Wilhelm Joseph Schelling)²⁾은 “인간 안에 어두운 원리의 전적인 힘이, 그리고 바로 동일한 것(인간) 안에서 동시에 빛의 전적인 힘이 존재한다. 그(인간) 안에 가장 깊은 심연과 가장 높은 하늘이, 혹은 두 개의 중심이 존재한다.”며 인간 안에 이중적인 힘이 존재함을 시사함으로써 인간의 본질 자체를 논했다. 본인은 인간 내면에 관한 셸링의 철학적 견해에서 인간 안의 빛의 전적인 힘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어두운 원리의 전적인 힘을 파괴적인 에너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양극성의 에너지를 자연의 원리와도 같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즉 어둠이 없다면 빛도 없는 것과 같이 인간 안의 이 두 에너지

2) 셸링 (Friedrich Wilhelm Joseph Schelling, 1775~1854) - 칸트, 피히테를 계승하여 헤겔로 이어주는 독일 관념론의 대표자의 한 사람이다. 주요저서로는 「선형적 관념론의 체계(System des transzendentalen Idealismus)」, 「인간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고찰(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über das Wesen der menschlichen Freiheit)」 등이 있다.

가 서로 맞서는 듯 하지만 실은 동일한 자연의 양끝과도 같은 것으로써 둘 중 한 부분만 인정하게 되면 존재의 균형을 잃게 된다는 관점으로 작품을 출발하였다.

그런데 사회라는 거대한 집단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잣대를 세우고 존재의 자연스러운 양상들을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이라 단정 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사고의 논리는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이분법적 세계관에 영향 받은 것으로 사실상 현대인의 사고구조의 적지 않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사회는 “공공의 선”을 위해 악(惡)보다는 선(善)을, 추(醜)보다는 미(美)를, 음(陰)보다는 양(陽)을 우위로 선정하며, 악(惡)으로 선정된 에너지는 은폐하곤 한다. 이러한 가치 우열의 잣대는 비단 현실의 자연스러운 양상들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에너지마저 선(善)이 아니면 곧 악(惡)이라는 방식으로 우열의 가치를 부여하려 한다.

본인은 현상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의 둘로 나누고 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식으로 가치의 우열을 부여하는 절대적 판단근거의 기준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가 우월성을 부여한 것들이 반드시 열성이라고 선정된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인지를 되짚어보기 위해 우성이라 부여받은 것 뒤에 가려져 있던 열성이라 선정된 것을 우성과 함께 나란히 가시화 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인은 이러한 연구과정의 결과물로서 인간 내면의 이중적 에너지를 그리스·로마 신화의 창조적인 이야기와 파괴적인 이야기를 활용하여 조형화하였다.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의 편견적 시각에 의해 그른 것이라

부여된 인간 내면의 반쪽인 파괴적인 에너지를 옳은 것이라 이름 지어진 창조적 에너지와 함께 대등하게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존재하고, 탄생과 죽음 사이에 삶이 있는 것처럼 본인은 내면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파괴적인 에너지의 양극의 에너지를 그 자체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자신의 근원을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세상을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2. 주제와 작품 형태와의 관계

1) 형태(形態)

본인은 작품에서 인간 내면의 양면성을 가시화하기 위해 상징적 이미지가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그리스·로마신화의 이미지를 빌어 형태를 구성하였다. 인간은 영문도 모르는 채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이를 먹으면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은 누구나 하게 되는 경험이다. 이 공통된 경험의 굽이굽이에 잠복해 있는 통과의례의 일련의 사건들을 어떤 일에 견주어가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화이다. 신화에는 인류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탄생과 죽음, 성적 경험, 운명에 대한 끈질긴 심리적 저항과 같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사건들이 담겨있다. 이때문에 신화는 수세기 동안 조각가와 화가들의 작품 속에, 오늘날엔 영화와 광고 등에서 재탄생 되고 있다. 본인은 이와 같이 우리의 보편적 경험을 담고 있는 신화의 상징적인 이야기를 작품에 활용함으로써 본인의 작품이 보는 이들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읽히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 <Māyā & Ātman> 시리즈 1-3에서 날개와 축수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보여 지는데, 날개 형상은 하늘을 날다 바다 속으로 추락한 이카로스(Icarus)³⁾의 날개를, 축수 형상은 신들에게 저주받아 괴물이 된 메두사(Medusa)⁴⁾의 뱀의 무리로 이루어진 머리카락을 상징화한 것이다.

그리스·로마신화의 미궁에 갇힌 다이달로스(Daedalus)는 미궁의 설계자이자 시공자이지만 미궁을 두 발로 걸어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새의 깃털을 주워 모아 엮고 밀랍으로 고정시킨 날개를 달아 그의 아들 이카로스(Icarus)와 함께 하늘을 날아 미궁에서의 탈출을 시도하였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과 창조력의 원형적 상징으로 표현된다. 또한 이카로스와 다이달로스가 발을 딛고 있는 땅으로부터 하늘로 다가가게 도움을 준 매개물(媒介物)인 새의 깃털로 만든 날개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비상(飛上)하는 새는 지상에 묶인 삶의 물질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한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하는 새는 신화와 종교, 미술에서 다른 세

-
- 3) 이카로스(Icarus) - 신화 속 최고의 장인이자 발명가인 다이달로스는 원래 아테네 출신으로 조카인 페르딕스를 죽이고 크레타로 도망쳐 미노스왕의 휘하에 들어간다. 여기서 다이달로스는 왕비 파시파에의 부탁으로 속이 비어있는 나무 암소를 만들어 주었고, 그 속에 숨어 들어간 왕비는 황소와 교미하여 우두인신(牛頭人身)의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낳았다. 이에 분노한 미노스왕은 다이달로스에게 미로를 고안하게 하여 미노타우로스를 가두었는데, 다이달로스가 왕의 딸인 아리아드네 공주에게 실타래를 주어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하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아리아드네를 도와 준 별로 도리어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는 자기가 만든 미궁에 갇히게 된다. 다이달로스는 미로에서 탈출하기 위해 깃털과 밀랍을 이용해 날개를 만들어 하늘로 날아올라 미궁을 빠져 나오게 된다. 그러나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한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한 이카로스는 결국 에게해 바다 속으로 곤두박질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었다.
- 4) 메두사(Medusa) - 고르곤 세 자매 중 하나로 원래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메두사는 포세이돈과 신전에서 바람을 피우다 아테나신의 저주를 받아 자신과 눈을 마주친 모든 대상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괴물이 됐다.

계로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의 상징적 표현이자 보다 높은 곳의 힘으로부터 오는 사자(使者)의 역할을 맡는 상징적 표현이었다. 이처럼 새와 새의 주요 상징인 날개는 하늘 즉, 트여있고, 광대한 곳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상징으로써 고대의 그리스·로마신화에서는 신들의 제왕 제우스(Zeus)가 둔갑한 독수리와 백조로, 날개 달린 천마 페가소스(Pegasus), 봄을 알리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Zephyrus)와 승리의 여신 니케(Nike)의 상징으로 이용되었다.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사자(messenger)인 천사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날개가 등장하였다.

본인은 내면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조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상징으로 인간의 창조적 욕망과 연결된 이카로스(Icarus)와 다이달로스(Daedalus)의 이야기에 나오는 새의 날개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상징이자 인간의 자유욕망의 상징으로 표현될 수 있는 비상하는 새의 날개 형상을 작품에서 조형적으로 활용하고, 신화 속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하여 파라핀 왁스를 재료로 표현하였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혐오스럽게 보이는 촉수는 그리스·로마신화에서 신들에게 저주받아 괴물이 된 메두사(Medusa)의 머리를 상징화한 것이다. 자신과 눈을 마주친 모든 대상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메두사의 무시무시한 속성은 외모에도 반영되는데 메두사는 외형적 특징 중 하나로 수백 마리의 뱀이 꿈틀대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뱀은 기독교 시대에는 유혹자 사탄이라는 역할이 맡겨짐에 따라 카오스, 무지한 파괴력, 물질의 세계에 내재된 악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처럼 서양에서 그것은 우리의 내부에 잠복해 있는 짐승이었고 고삐를 채워두지 않으면 우리를 야수의 차원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원초적 에

너지의 상징으로 메두사의 일부로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속성을 강조한다.

본인은 내면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조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신화 속에서 파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메두사(Medusa)의 상징 중 뱀의 무리로 이루어진 머리카락과 메두사(Medusa)라는 영문명의 해파리의 외형적 특징 중 가늘고 긴 촉수를 형태적으로 조합하여 활용하고, 뱀과 촉수의 연체적인 특징을 표현하기 위한 재료로 실리콘을 선택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2)색(色)

색은 명암이나 색의 농도, 색의 대비 등의 많은 표현의 자유와 내용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색은 작가의 내면적인 감성을 표출하는 가장 표면적이고 중요한 표현요소로써 작가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해지며 구체적인 의미나 추상적인 의미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런 의미로 색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인은 인간 내면의 창조적이고 밝은 에너지와 파괴적이고 어두운 에너지의 양 극의 존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작품에서 표현하기 위해 집중적인 대조로 가장 강력한 양극을 이루는 무채색 중의 흰색과 검정색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흰색은 상징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색 중에서 가장 완벽한 색이다.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하얀 개념은 없다.⁵⁾ 이 때문에 흰색은 미술작품에서 대개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예를 구체적으로 찾으면, 제우스는 이승적인 사랑 모험에서 백조나 흰색 황소로 변신한다. 그리고 기

5) 에바 헬러, 이영희 역, 색의 유혹, 예담, 2002, p.221

독교에서는 흰색 비둘기가 성령의 상징으로서 최고의 의미로까지 높여진다. 또한 신의 어린 양은 비잔틴 양식의 천정 모자이크에서 흰색으로 표현되었다.⁶⁾

본인은 위와 같이 흰색이 신성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흰색 동물이 대개 신성한 것으로, 그리고 심지어 신의 변형으로 간주되는 것과 같이 빛, 활력, 낙관주의를 뜻하는 양(陽)의 색인 흰색으로 날개를 만들어 이것이 인간 내면의 창조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상징하도록 의도하였다.

무채색의 스펙트럼 중 양(陽)의 색인 흰색의 반대인 검정색은 그늘진 곳, 즉 음(陰)을 상징한다. 모든 파장의 빛을 반사하는 흰색과 달리 검정색은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 그래서 한번 죽으면 돌이킬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검정색은 죽음의 적절한 상징이 된다.⁷⁾ 부패한 고기는 검게 변하고 식물이나 치아가 썩어도 검게 되어 종말을 의미한다.⁸⁾ 이처럼 검정색은 죽음을 상징함과 동시에 부정의 색으로 상징되었는데, 프랑스어의 'bête noire', 즉 검은 동물은 무서운 악령을 뜻하는 것으로 악한 것, 나쁜 것을 상징하며 새까만 까마귀와 고양이는 불행을 상징한다.⁹⁾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검정은 어둡고 비밀스런 측면을 갖는다. 검정은 혼란, 지하세계, 마술, 죽음, 무의식에 해당된다. 검정은 생명으로 가득 찬 것, 활력에 넘치는 것, 긍정적인 것을 모두 부정한다.¹⁰⁾ 이러한 의미로 검정색은 미술작품에서 대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암흑, 죽음, 지옥과 같은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6) 마가레테 브룬스, 조정옥 역, 색의 수수께끼, 세종연구원, 1999, p213

7) 빅토리아 핀레이, 이지선 역, 컬러여행, 아트북스, 2005, p156

8) 에바 헬러, 이영희 역, 색의 유혹, 예담, 2002, p.181

9) 에바 헬러, 이영희 역, 색의 유혹, 예담, 2002, p.187

10) 윌러 메에스, 이영희 역, 컬러과워, 베텔스만, 2003, p137

본인은 이와 같이 부정적인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검정색으로 축수를 만들어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 하는 인간 내부에 숨어 있는 파괴적이고 어두운 에너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3)물질(物質)

전통적으로 조각에서는 청동이나 대리석, 나무와 같은 견고한 재료를 오랜 세월동안 작품에 사용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작품을 이루는 재료에는 견고한 것에서부터 유약한 것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오브제를 작품에 도입하는 등 작품을 이루는 재료에는 한계가 없어졌다. 작가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다양한 재료들 중 작가의 심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본인은 본인의 작품에서 인간 내면의 창조적이고 밝은 에너지와 파괴적이고 어두운 에너지를 조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차용한 그리스·로마 신화 속의 이카로스의 날개와 메두사의 머리카락을 보다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재료로 파라핀 왁스와 실리콘을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본인은 작품에서 흰색의 날개를 파라핀 왁스(Paraffin Wax)로 제작하였는데 왁스는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이면서 온도를 높이면 유체(流體)로 변하는 물체이다. 특히 본인이 작품에서 날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파라핀 왁스는 저융점(低融點) 왁스로 신화 속에서 새의 깃털과 파라핀 왁스로 날개를 제작해 하늘을 날다 태양의 열기에 의해 파라핀 왁스가 녹

아내려 바다로 추락했던 신화 속의 이카로스의 날개를 암시하기 위한 재료의 선택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촉수를 만드는데 사용한 실리콘(Silicone)은 경화제와의 혼합을 통해 굳게 되면 $-50\sim 200^{\circ}\text{C}$ 의 넓은 온도 범위에서 고무탄성과 신축성을 유지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재료이다. 이것으로 제작한 검은 촉수는 신화 속의 파괴의 신인 메두사의 뱀의 무리로 이루어진 머리카락과 '메두사(Medusa)'라는 영문명을 갖고 있는 해파리의 촉수의 유연한 연체성질을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3. 작품분석 및 작품도판



【작품 1】 Māyā & Ātman I , 90×115×90 ~ 90×210×45cm, 파라핀
왁스, 실리콘, 낚시 줄, 2004

【작품 1】 Māyā & Ātman I

크기 : 90 X 115 X 90 ~ 90 X 210 X 45cm

재료 : 파라핀 왁스, 실리콘, 낚시 줄

제작년도 : 2004

제작방법 : 새가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는 모습을 몸통을 제외한 왼쪽과 오른쪽 날개를 유토(油土)로 만들고, 이를 실리콘과 석고 틀로 제작하여 이 주형틀에 흰색의 파라핀을 녹여 부어 동일한 크기의 여러 개의 날개 형상을 주조하였다. 각 날개의 잘려진 단면으로부터 연결되어 늘어진 여러 가닥의 검은 촉수들은 날개를 제작한 것과 같이 유토(油土)로 여러 길이의 촉수를 만들고 이를 석고 주형틀로 제작하여 검은 안료를 혼합한 실리콘을 부어 넣어 길쭉한 촉수 형태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촉수를 날개의 주형틀에 부어 넣은 파라핀이 굳기 전에 넣어 연결하고, 이때 천정에 매달기 위한 낚시 줄도 함께 넣어 고정시켰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작한 날개와 꼬리를 세 쌍 즉 왼쪽 날개 3개, 오른쪽 날개 3개를 합쳐 총 6개의 날개를 날개의 잘려진 단면을 중심으로 둥글게 조합하였다. 이때 날개와 촉수를 균형을 이루게 조합하였다.

이렇게 조합된 날개와 촉수의 그룹을 위의 작품사진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날개로부터 연결된 낚시 줄을 이용하여 좌우로 펼쳐진 날개의 넓은 면이 보이게 3쌍의 날개를 원의 형태로 조합하여 수직으로 천정에 매달아 설치하였다. 그로 인하여 날개의 잘려진 단면으로부터 연결된 검은 촉수는 중력의 작용으로 공중에 매달려진 날개로부터 바닥으로 수직

으로 늘어지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 쌍의 날개와 촉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다섯 그룹의 날개와 촉수를 공간 속에 관람자가 걸어 다니면서 관람하기 용이하게 서로의 간격을 유지한 채 머리 위의 높이에서부터 허리 높이까지 서로의 그룹이 높이가 각기 다르게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날개로부터 연결되어 아래로 늘어진 촉수는 높게 매달린 날개로부터 연결된 것은 바닥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 있게 되며 천정으로부터 낮게 매달린 날개로부터 연결된 촉수는 바닥에 닿아 좌·우 혹은 동서남북으로 바닥에 펼쳐놓았다.

작품분석 : <Māyā & Ātman I>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창조적이고 밝은 에너지와 파괴적이고 어두운 에너지를 가시화하고 날개와 촉수를 수직구조로 설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현상은 물론 인간 내면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분법적 세계관의 가치의 우열 방식을 드러내기 위한 작품이다.

본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작품 <Māyā & Ātman> 시리즈 1-3에서 인간 내면의 창조적이고 밝은 에너지와 파괴적이고 어두운 에너지를 상징화하기 위해 그리스·로마 신화 속에서 인간의 창조적 욕망의 원형으로 표현되는 이카로스의 날개를 흰색의 파라핀 왁스로, 파괴의 상징인 메두사의 머리카락을 검은 실리콘으로 제작하였다. 이 둘을 연결하여 만들고 흰색의 파라핀 날개는 상위에 검정색의 실리콘 촉수는 하위에 수직의 구조로 설치한 것은 신화 속 이카로스의 이야기에서 착안하여 만든 비상하는 새의 날개가 하늘, 즉 높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에 설치하였으며 이것과 연결한 검은 촉수는 날개의 아래에 설치하였다. 신화 속 메두사의 이야기에서 착안하여 만든 촉수는 메두사의 머리카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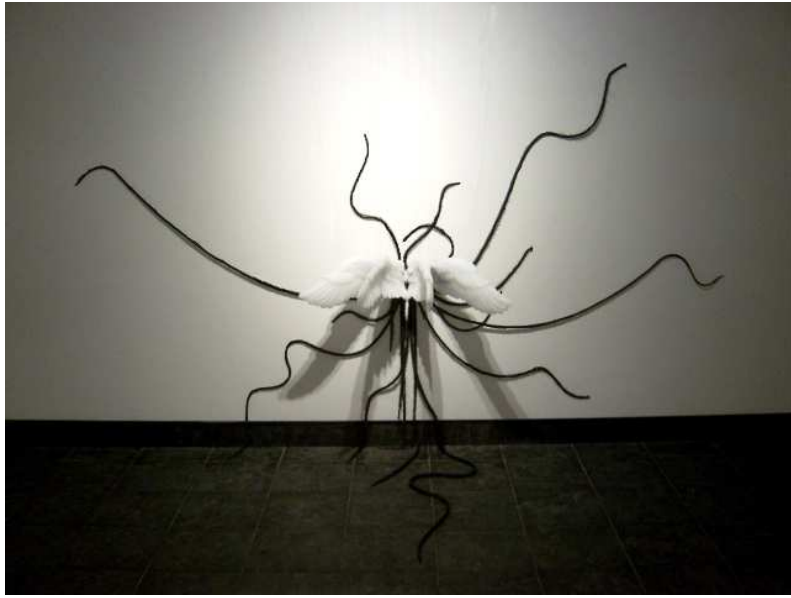
을 대신하고 있는 뱀의 무리와 바다의 메두사인 해파리의 촉수를 더하고 재해석하여 만든 것으로 뱀은 땅, 해파리는 바다에 생활 영역을 두고 있는 것으로써 하늘과 맞닿아 아래에 있는 지(地)와 해(海)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날개의 아래 땅으로 향하게 설치하였다.

본인은 위와 같이 날개와 촉수를 수직구조로 설치함으로써 이분법적 세계관이 우리 내면의 창조적인 에너지의 반쪽에 우성의 가치를 부여하고 파괴적인 에너지의 반쪽에는 열성의 가치를 부여한 것에 대한 가시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고 있는 다수가 확신하는 '비교우위' 개념들을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둘의 결합을 Māyā(환영)와 Ātman(본질)이라 이름 붙임으로써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가치 우열의 개념들이 진실이 아닌 환영일 수 있으며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의도하였다.



【작품 2】 Māyā & Ātman II -1,2, 190×170×45, 100×90×45cm, 파라핀
왁스, 실리콘, 낚시줄, 2004



【작품 2】 Māyā & Ātman II-3, 185×150×45cm, 파라핀 왁스, 실리콘,
뉘시 줄, 2004



【작품 2】 Māyā & Ātman II-4, 140×180×45cm, 파라핀 왁스, 실리콘,
뉘시 줄, 2004

【작품 2】 Māyā & Ātman II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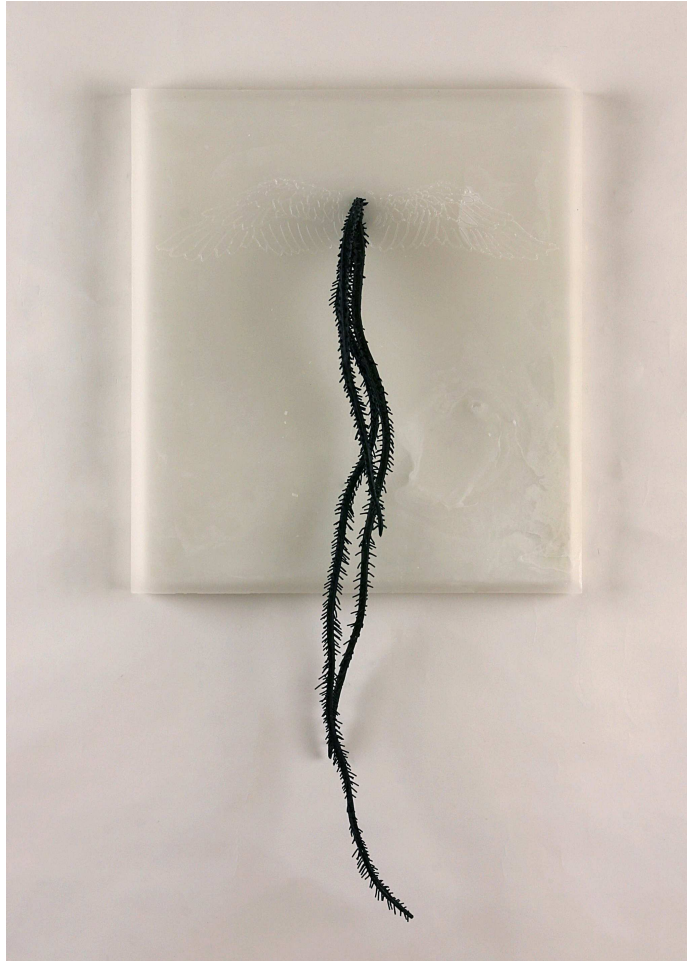
크기 : 190 X 170 X 45, 100 X 90 X 45, 185 X 150 X 45, 140 X 180 X 45cm,

재료 : 파라핀 왁스, 실리콘, 낚시 줄

제작년도 : 2004

제작방법 : 이 작품은 <Māyā & Ātman I>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 벽에 설치한 것이다. 이 작품은 위의 세장의 작품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쌍에서 두 쌍의 날개와 촉수의 조합을 각 날개와 촉수가 연결된 지점이 벽으로 향하게 설치하였다. 그리고 날개로부터 연결된 검은 실리콘 촉수는 벽에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날개의 위와 아래, 좌우로 촉수의 가닥들을 구부려 벽에 붙여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시장의 세 벽에 <Māyā & Ātman II 1-4>를 설치하였다.

작품분석 : 이 작품은 <Māyā & Ātman I>의 공중에 매달린 수직적 설치에서 발전한 설치방법으로 작품 <Māyā & Ātman I>이 흰색의 파라핀 날개를 상위에, 그로부터 연결된 촉수의 다발을 날개의 하위에 설치하여 이분법적인 가치의 우열 방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반면 <Māyā & Ātman II 1-4>는 벽에 설치한 날개로부터 연결된 촉수들이 중력의 지배를 깨고 촉수 하나하나가 중심으로부터 상하좌우로 물결치듯 설치함으로써 이분법적 세계관의 가치기준으로 열등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던 내면의 파괴적이고 어두운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열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본인의 관점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분법적 세계관이 만들어 놓은 경계와 가치의 우열개념을 와해시키고 평형상태를 만드는 것에 궁극의 목적이 있는 작품이다.



【작품 3】 <Māyā & ĀtmanⅢ>, 39.5×76×3.5cm, 파라핀 왁스, 실리
콘, 2004

【작품 3】 Māyā & ĀtmanⅢ

크기 : 39.5 X 76 X 3.5cm,

재료 : 파라핀 왁스, 실리콘, 나무, 캔버스 천,

제작년도 : 2004

제작방법 : 39.5 X 76 X 3.5cm의 납작한 틀에 파라핀 왁스를 녹여 부어 그 위에 캔버스를 올려 굳히는 방법으로 납작한 직사각형의 파라핀 덩어리를 제작하고 상단에 좌우로 펼친 날개 형상 한 쌍을 조각칼로 굽어 음각으로 그려 넣었다. 이 음각으로 그려진 날개의 중앙에 구멍을 뚫어 검은 실리콘 촉수를 사각의 실리콘 안쪽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바깥쪽으로 돌출되게 연결하여 만들어 벽에 걸어 설치한 작품이다.

작품분석 : 이 작품은 날개의 형상을 파라핀 왁스로 코팅한 캔버스의 중앙에 음각으로 흔적을 남김으로써 앞서 작품들의 날개가 갖는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를 네모난 흰색의 파라핀 덩어리로 보이게 하여 작품을 날개형상이기보다 하나의 단위로 강조하였다. 이 단위는 작품이 설치되는 전시장의 흰 벽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다.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인 화이트 큐브(White Cube)는 일반적으로 화랑에서 볼 수 있는 입방체의 공간구조를 말한다. 화이트 큐브는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의 순수성을 의미하는데, 본인이 제작한 사각의 흰 파라핀 덩어리는 화이트 큐브의 일부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분법적 세계관에 의해 우성으로 가치를 부여받은 것의 일부로 상징화한 형태이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을 흰 벽면에 설치하였을 때 흰 파라핀 덩어리는

벽과 유사한 색으로 인해 벽에 흡수되고 상대적으로 중앙 상단에서 돌출된 검은 축수가 눈에 띄게 된다. 이러한 설치의 의도는 이분법적 세계관에 의해 열등한 가치를 부여받은 인간 내면의 파괴적인 에너지가 우월한 가치로 부여받은 것에 의해 가려져 있다 해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Ⅲ. 결 론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은 인간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인간 존재의 근원을 알고자 하는 노력의 숨결을 이어 오고 있다. 본인은 인간 내면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 존재의 근원을 알아가고자 하였고 이러한 연구는 인간 내면의 이중적 에너지로 표현되었다. 인간은 자기 안에 나를 존재하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게 되는데, 본인은 자연이 양(陽)과 음(陰)의 거대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듯이 내면의 에너지 또한 창조적인 에너지와 파괴적인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관점으로 작품을 이끌어 나갔다.

본인은 위의 전제들로부터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내면과 심리를 담아낸 신화와 미술의 상징을 활용하고 본인의 상상력을 더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에 본인의 사회에 만연한 이분법적 세계관의 가치우열에 대한 비판적이고 항거적인 메시지를 담고자 양극의 두 에너지를 동등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려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나를 구성하는 근원적 에너지를 탐구하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밝고 투명한 정신인 아폴론과 깊고 어두운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알 수 없는 광포한 힘인 디오니소스적 충동이 함께 존재하기에 그리스 예술이 위대했듯이 내 안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파괴적인 에너지의 존재를 편견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내면을 이루고 폭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작품에 창조적인 시각의 밑거름을 이루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쇼펜하우어, 『세상을 보는 방법』, 권기철 역, 동서문화사, 2005

백종현, 『존재와 진리』, 철학과 현실사, 2000

F.W.J.셀링, 『철학의 원리로서의 자아』, 한자경 역, 서광사, 1999

R.뵐리간들라, 『인도철학』, 이지수 역, 민족사, 1991

뤼디거 자프란스키, 『악 또는 자유의 드라마』, 곽정연 역, 문예출판사,

2002

윤익영, 『도상해석과 조형분석』, 서울, 도서출판 재원, 1987

데이비드 폰테너, 『상징의 비밀』, 최승자 역, 문학동네, 1998

마커스 로드워, 『신화와 미술 성서와 미술』, 유영석·김수정 역, 아트나

우, 2003

샹플뢰리, 『풍자예술의 역사 고대와 중세의 패러디 이미지』, 정진국 역,

서울, 까치글방, 2001

진중권, 『미학오디세이』, 서울, 새길, 2001

아르놀트 하우스,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백낙청 역, 창작과비평사,

1999

에바 헬러, 『색의 유혹』, 이영미 역, 예담, 2002

마가레테 브룬스, 『색의 수수께끼』, 조정옥 역, 세종연구원, 1999

빅토리아 핀레이, 『컬러여행』, 이지선 역, 아트북스, 2005

미셸 파스투로, 『색의 비밀』, 전창립 역, 미술문화, 2003

뮐러 메에스, 『컬러 파워』, 이영희 역, 베텔스만, 2003

ABSTRACT

A Study about Plasticity
for the dualism of the energy of the human being's inside
- Centering around My Work-

Han, Hye Seong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n's University

This study's subject is one of the researcher's own works which was about contemplating the dualism of the energy of the human being's inside. The researcher has continued to study the diversity of the human being's inside until now. Among the works, the subject work of this study started with the viewpoint that there are two polar energy-creative and destructive energy in the human being's inside simultaneously, and the researcher tried to express these two energy on this work by accepting each of them as equal human energy not giving one of them supremacy.

In order to express this bipolar energy as a shape, the researcher utilized the archetype symbolic image of the human creative desire of Icarus, and the symbolic image of destructive goddess Medusa as elements for shaping the work, and emphasized them with colors and materials. In the process of shaping those symbolic elements into the work, in order to reflect the researcher's point of view with which the researcher wants to accept both the creative and destructive energy of the human inside as the principle of composing 'myself', the two elements expressed as a shape were composed with visually equal weight.

By visualizing the creative and destructive energy of the human inside which the researcher experienced through the working process, the researcher wanted to providing the experience with which on can reveal the dual energy of the human inside, and at the same time the logic of dichotomy which gave birth to the concept-'absolute superiority' or 'relative superiority', can be changed.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Māyā & Ātman> series 1-3 of the researcher which was for visualizing the creative and destructive energy of the human inside, an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discourse on the characteristics appeared on the researcher's own work, focusing on its contents, expressions and installation.

In Chapter I, Introduction, the researcher's viewpoint that the researcher wants to find the source of the human being through studying the human inside, and the contents and range of the study about the work produced based on that viewpoint, were introduced.

In the main discourse Chapter II-1, it discoursed on the spiritual background of the work, and in II-2, it expl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me and the shape of the work focusing on its shape, colors and materials. Finally in II-3, it introduced a reference illustration and with explanation about installation method of the work, analyzed the work.

In Chapter III, Conclusion, it reviewed and summarized the contents of this thesis, and the work generally.